

한라시론



김 양 훈
프리랜서 작가

제주를 떠나 사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고향을 그리워할까? 누구나 애뜻하게 간직한 추억거리가 두서너개 있을 테다. 나예겐 저녁노을 지는 구엄리 바닷가가 가장 그림다. 채송화 피던 흙마당과 정군철 시인의 ‘애월길’을 떠올리게 하고, 장필순의 노래 ‘애월낙조’를 생각나게 한다. 이른 봄날의 수선화와 바위틈 순비기 꽃, 모진개 태역발의 키 작은 해국과 올레를 달리던 땀방울도 때때로 그리운 동무들이지만, 검바위와 돌발레 해변의 저녁노을은 그 이상이다.

1970년대 초반, 무전여행이 유행했다. 여름방학에 육지 친구들이 고향

애월낙조

집에 놀러 오곤 했다. 내륙이라 간고 등어나 먹으며 자랐을 안동 태생이 놀러 왔다. 쪽풍우가 물러간 해 질 녘이었다. 낭간을 내려와 흙마당에 나온 친구는 울담 너머 수평선 위에 물들이 시작한 노을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윽고 절정에 이른 검붉은 노을은 하늘을 태우는 화염이었다.

부엌문 곁 물구덕을 놓아두던 물팡자리. 얼마 전에 들인 수돗물로 우영에서 따온 저녁거리 송기를 씻던 어머니가 물었다. “자이 무사 저영 햄시니?” 육지 손님의 눈에는 아무리 장엄한 황혼일지라도 어머니에게는 일상의 풍경에 지나지 않았으니, “저 아이 예 저러냐?”고 묻는 말이었다. 나는 혼자 웃고 말았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즈음, 우리는 마흔을 넘겼다. 중문 베릿내에서 자란 정군철 시인은 구엄리 바닷가를 무척 좋아했다. 그런 그는 ‘애월길’이란 시를 남겼는데, 해안가 소

로길을 마구 파헤치며 아스팔트 포장을 하던 때였다. 동쪽 가문동에서 서쪽으로 애월포구까지, 길이 10km의 2차선 애월해안도로는 1989년에 시작해 8년 후인 1997년에 개통했다. 우마가 꾸역꾸역 지나가고 태악 진 좁녀(潛女)들이 오가던 오붓한 길이 날쎈 자동차 길로 변해버렸다.

달의 뒤꿈치를 끌어당기는 맥구름이/ 가끔 길을 끊어 놓는다/ 길썰의 쪽부쟁이 내음 더욱 짙어지고/ 해안은 열이레 가을달로 마모되어 간다// 구엄지나 중엄, 중엄 지나 신엄의 오르막길/ 사람이 곧잘 떨어져 죽은 흔적이 남아 있는 벼랑에/ 문수가 서로 다른 신발들이/ 드문드문 방지석으로 서 있다// 달이 벼랑에 이르자/ 방지석 사이 뿌리를 두고 피어난 한 무더기 익새/ 자줏빛 더욱 짙어진다// 마을의 불빛들 모두 꺼지고/ 벼랑 위위명을 지나 고내로 떠가는 달/ 느슨하게 몸을 풀던 아스팔트의 역청재가

굳어지는 사이/ 또다시 고내 지나 애월로 <정군철의 ‘애월길’ 전문>

20년 세월이 더 흐른 2014년 동지철달 끝자락, 소길리 사는 가수 장필순은 새 노래 ‘애월낙조’를 세상에 내놓았다. 진 주홍빛 구름들로 덮여 버린 하늘과 바다... 슬픔은 노을을 좋아한다며 잠잠하게 노래했다.

난개발, 비자림로 확장, 제2공항건설은 제주의 큰 논란거리다. 산과 들과 바다는 쓰레기 천지다. 자본의 개발 물결은 마을 공동체를 괴롭힌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 도정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최근 도정의 책임자인 도지사는 중앙의 정치에 더 관심이 많은 눈치다.

‘애월낙조’의 한 구절이다. ‘누군가가 말했다지 슬픔은 노을을 좋아해. 하지만 우리들은 아직 기억해 그 평화’. 별도리가 없는 것인가? 어스름초가를 오후 이런저런 생각이 꼬여 구엄리 석양은 가뭇없다.

사설

섬지역 농민의 어려움 외면하는 기재부

섬지역인 제주는 농산물 물류비가 만만찮습니다. 농산물을 육지로 보내야 하는 농민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연간 149만t으로 이 중 88만t(59%)을 타 시·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운송비로 연간 738억원이 소요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돼 안타깝습니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중앙정부에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으로 41억90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농산물 해상운송비 예산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위 의원은 농림부에서 지난 몇년간 관련 예산을 계속 요구했는데도 기재부가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농산물 해상물류비는 무척대고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물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타지방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나 제주지역은 항공물류비마저 오르면서 농가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농업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기재부는 영무채처럼 ‘형평성’을 들이대며 외면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이전에 농산물 해상물류비는 법적 근거로 신청한만큼 마땅히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편집국 25시

직위해제 남용과 무력화



표 성 준
교육문화체육부 차장
sjpyo@ihalla.com

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를 앞둔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지 않는 직위해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의무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지만 봉급을 감액하고 훗날 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 수단이자 범죄 예방책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남용하거나 반대로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한 초등학교장을 최근 직위해제했다. 교육청은 8월 초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지 3일 만에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기소는커녕 경찰에 입건되지도 않은 공무원을 일사천리로 직위해제했다는 점에서 남

용이라 할 만하다. 이후 교육청은 중징계가 아니라 경징계 사안이라면제도 교정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직위해제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있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도청 공보관과 비서관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직위해제 제도의 무력화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찰은 공무원을 입건했을 때와 검찰에 송치했을 때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직위해제된 사례는 흔하지만, 지난해 입건 후 기소까지 이뤄진 이 두 명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없었다. 심지어 지난 6월 법원은 이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는데도 도정은 상식을 깨고 지금껏 이들의 직위를 보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를 재판하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커 매우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더의 사고방식은 집단에겐 전염된다”는 말이 있다. ‘죄의식의 부재’가 공무원사회에 전염될까 봐 두렵다.

뉴스-in

“국가중심 직업 교육 지원기반 필요”

“조국 후보자 납득 안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일 오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친구’라고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납득 안돼”라고 일갈.

원 지사는 “말할 것도 없다”며 “대통령 취임사와 조국 후보가 자신이 이야기한 것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등에 대한 현안 질문에도 원 지사는 조국 후보자를 겨냥해 “국정 전반에 좋은 영향을 못 끼칠 것 같다”며 힐난. 이소진기자

음식물쓰레기 교육 만족감

○…서귀포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20회 진행한 찾아가는 맞춤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교육이 호응.

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자”는 목표로 어린이와 성

인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줄이기 필요성, 실천 방법 등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교육중.

시 관계자는 “상반기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93.9%가 교육전반에 대해 만족했다”며 11월까지 맞춤형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이석문 교육감 유럽 벤치마킹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8월 31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국외 교육기관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

이 교육감은 장외국 광주교육감 및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함께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 4개국 교육기관을 찾아 직업 교육 내용 등을 벤치마킹.

이 교육감은 2일 독일연방직업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독일처럼 국가 중심의 직업 교육 지원기반이 명확히 마련돼야 직업 교육의 안정성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 표성준기자

복상하는 가을철 태풍 대비 철저히 하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1주일정도 앞두고 강력한 태풍 ‘링링’이 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여년동안 제주에 영향을 준 가을철 태풍이 매서웠던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부근 해상까지 북상한 뒤 6일 오후부터 제주 남쪽 먼바다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링링’의 북상이 우려되는 점은 바다의 높온 온도를 흡수하면서 태풍의 강도가 계속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를 관통할 때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39m에 강풍반경도 380km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33~35m의 바람은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으며 초속 30m 이상은 가로수가 뽑히고 날은 집은 무너지는 수준입니다. 강풍으로 인한 정전이나 가로수 전도, 간판 날림, 비닐하우스 붕괴 등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가을장

마’로 제주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계속된 상태에서 많은 비가 내리던 농작물 침수뿐만 아니라 축대 붕괴 등의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불과 2~3시간 사이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졌고 제주시에 들어 하천이 범람하면서 13명이 숨지고 1370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에도 제주시 한천 범람으로 19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다. 제주자치도 재난당국은 큰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일 오전까지 하천이나 해안, 상습침수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재난 상황에 대한 매뉴얼 점검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도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고정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부 고

강지석(한국공항공사 항공연구소장) 아버지 **신현강공 재음(향년 100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3일 18시 00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5일(목)
▶발인일시: 2019년 9월 6일(금)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 지: 삼달리 선영

아 들 강지석 며느리 현경순
딸 강경순 사 위 고진부
육손 호순 김태우

※ 연락처 : 강지석 010-8634-6149
고진부 010-3691-4180
김태우 010-4469-5577
부민장례식장 742-5000

부 고

고은범(자영업) 아버지 **제주고공 수준(前 금호타이어 제주영업소 대표·향년 78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4일 09시 04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5일(목)
▶발인일시: 2019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10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고은범
은산 며느리 김미정
은철 고미영

※ 연락처 : 고은범 010-4678-9575
고은산 010-5097-2413
고은철 010-2696-6543
김미정 010-3328-3557
고미영 010-2695-654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진주강씨 정옥(향년 101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아 들 조형욱 며느리 박봉순
응욱 김원자
영욱 현순희
명욱 김경숙
딸 조춘자
영자 사 위 현상의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한양조공 태일(향년 8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부 인 김옥인
아 들 조정길 며느리 최은실
정진원 김영희
딸 조민경(장녀) 사 위 장대준
정순 김영보
정화 김경철
정열 김종훈

합병 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매스아시아(이하 “갑”)와 주식회사 알파카(이하 “을”)는 각 이사회에서 상법에서 규정한 합병절차에 따라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병당사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5일

합 병 법 인 **갑 주식회사 매스아시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40, 지하 1층 삼성동 빌딩브로모 대표이사 정수영

피합법법인 **을 주식회사 알파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명 2길 55, 5동 애월미하스 대표이사 임현규

황금향 판매

**당도 탁월, 산도 적음
껍질 잘 벗겨짐**

생산자 직거래, 택배비 포함

**5k(25개~35개) 4만원
10k(50개~70개) 7만원**

문의 **오문식 010-3696-3933**
(도매도 가능합니다.)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계분 판매합니다.
(배 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성로106-7)

머리카락이 빠집니까?

국내 특허 제제이며 한시적으로 무료제공함.
도내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바이오키프로임

무료 제공기간 2019.8.27 ~ 2019.10.31

※ 모공이 닫힌분은 전혀 효과없음

TEL. **064-725-0622**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제주편백우드(영)
**제주시 보배길32-16
(제주대학교병원쪽)**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특성을 미국식품의약국 FDA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887, 010-5755-88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